

[로스쿨 합격기]

나를 알아가며 성장하는 시간

김 돌 리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년 입학



I.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결정

제가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째로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어와 중국어 실력을 살릴 수 있는 전문직을 꿈꿔왔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향후 운신의 폭과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기는 소속 학부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는 크게 행정고시 합격을 통한 공직 진출과 로스쿨 진학을 통한 법조계 입문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맞춰 학사 과정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행정고시의 수험과목과 기본 법 과목들이 전공으로 개설됩니다. 저도 이러한 커리큘럼을 따라 2학년 1학기를 시작으로 학부에서 제공하는 법 과목들(법학통론, 민법총칙, 채권총론, 국가조직론, 기본권론, 행정법총론, 상법총론, 형법총론, 국제경제법, 현대사회와법 등)을 수강하기 시작했고, 분쟁의 단계적 해결을 추구하는 법학 공부에 흥미를 느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II. 시기별 구분

1. LEET (2016.2. ~ 2016.8.28.)

(1) 시작 전 전략적 휴식

3학년 2학기가 끝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약 한 달 정도의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LEET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강하자마자 바로 LEET

준비에 돌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졸업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은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4학년 때 로스쿨 입시를 병행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학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험생이라는 생각에 초반부터 욕심을 과하게 내거나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공부하는 것도 쉬는 것도 아닌 채로 애매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막막하고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만, 시간을 정해서 진정한 '방학'을 만끽하며 약 1년에 걸친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 스스로를 충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부터 입시 시작 전 휴식을 강조한 가장 큰 이유는 LEET가 공부 시간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LEET를 2년 준비한 사람의 성적이 2개월 준비한 사람의 성적보다 낮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오죽하면 LEET는 IQ와 순발력 테스트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물론 깊이 있는 비판적 독해의 기본기는 탄탄해야 하며 일정량의 문제풀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LEET는 결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시간 매달리면 효율과 흥미만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을 지혜롭게 꾸리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유의미합니다.

(2) LEET 준비

저의 LEET 준비 과정은 크게 메가로스쿨 학원 강의 수강과 스터디로 이루어졌습니다. 7학기 조기졸업을 위해 4학년 1학기에 휴학을 했기 때문에 학원 현장강의를 들을 시간이 확보되었고, 언어이해는 문덕윤 강사, 추리논증은 강태길 강사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문제풀이 시기에만 학원을 이용하는 수험생들도 있지만, 저는 수능을 준비할 때도 언어영역에서 제일 고전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학원 강의를 통해 독해의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스터디는 상이한 전공의 성균관대 재학생들로 구성해 매주 언어, 추리 기출문제 1세트씩을 풀고 모르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서로 질문하며 분석했습니다.

5월 전까지의 공부는 LEET 기출문제를 통해 사고력을 기르는 토대를 쌓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양질의 문제가 적다는 이유로 LEET 기출문제 학습을 시험 응시 직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일찌감치 접하면서 LEET의 사고방식이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LEET 외에 MDEET 언어영역 기출문제도 좋은 독해 연습 도구입니다. 본격적인 LEET 준비에 앞서 최신 기출문제 한 세트를 시간을 정해서 푸는 것을 자기 진단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제

경험상 이 시기의 점수는 실제 LEET 성적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니 본인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이 정도 시간 제약 하에서 이만큼 푼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월까지의 비교적 시간이 많으므로 문제풀이에 치중하는 것보다 독서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논증적인 비문학 도서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원에서는 도서 스테디를 따로 편성해 주거나 추천 도서 목록을 배부하기도 합니다. 추천 목록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읽기 시작하면 금세 지루해져 아예 책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부터, 가장 부담이 적은 책부터 시작해서 차츰 독해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다만, 「한 권으로 읽는 철학의 고전 27」(나이절 위버턴 저) 만큼은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나 출판사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요 서양철학자들의 사상을 요약한 책인데, 철학자 한 명 한 명의 사상을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 높은 논증입니다. LEET의 단골 주제인 철학적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덤입니다.

5, 6월은 하프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실전의 문제 수와 시간을 각 반으로 줄여 문제풀이 훈련을 했고, 7, 8월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실전에 대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추리논증의 실전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7, 8월 동안 김우진 강사의 모의고사를 추가적으로 풀었습니다. 적어도 7, 8월만큼은 학원 현장강의를 통해 시간 제약 하에서 에어컨, 책상 크기, 강의실 규모 등 다양한 장애물들에 본인을 노출시키고 시험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 기간 동안 문제를 풀고 OMR 답안지를 제출하면 바로 본인의 상대적 위치가 표시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일희일비하며 좌절감을 느끼고, 저도 이 성적표를 덤덤하게 바라보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LEET 강사들께서도 솔하게 말씀하시지만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희일비하는 순간 ‘멘탈’이 무너지고 끝까지 완주할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학원 강의와 별개로 약 3번 실시되는 LEET 전국모의고사에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응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 LEET 출제 경향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전국모의고사는 현장감을 익히고 실전처럼 점심 먹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교시가 지나고 나면 저절로 귀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때 꼭 참고 점심을 드신 후 논술까지 응시하신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연습이 됩니다.

저의 경우 5월을 기점으로 LEET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문제풀이보다는 독해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4월까지의 독해력이 향상되는 성취감을 맛보았던 터라 보다 좋은 LEET 성적을 내려는 욕심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문제풀이 훈련에 돌입하는 5월부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순발력 있게 풀어야 하는 시험 체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버거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한동안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이 시험을 끝까지 준비하는 것에 대해 회의가 들어 슬럼프를 겪으면서 포기만은 하지 말자는 자세로 스스로를 달랬고, LEET를 응시하던 당일까지 이러한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결과 실전에서 언어 26개, 추리 26개를 맞췄습니다.

논술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님의 6회에 걸친 LEET 논술 특강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LEET 영역 중 논술에 가장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형별 답안의 틀을 익히는 훈련을 시험 직전에만 했습니다. 논술이야말로 기출문제의 양이 가장 적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짧고 효율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글 쓰는 훈련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자기소개서 (2016.9.20. ~ 2016.10.11.)

LEET 응시 후 법전원협의회 측 공식 성적 발표 전까지 약 3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시간을 자기소개서 준비에 할애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3주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로스쿨에 이미 진학한 선배는 LEET 준비 기간부터 큰 도화지에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꾸릴지 고민해보라고 조언을 하셨지만 저는 이 조언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입 수시 자기소개서를 써 본 경험이 있어 제 삶을 하나의 논증으로 구성하고 적절한 포장을 가미하며 설득력을 높여가는 과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침식을 부탁드린 지인들도 성비와 연령까지 고려하며 일부러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자교 로스쿨 선배, 타교 로스쿨 선배, 법무부 인턴을 통해 만난 로스쿨 졸업생들, 학부 때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 (로스쿨 교수님들 포함), 부모님 등께 침식을 부탁드렸고, 같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과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마다 질문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의 경험을 열거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분량 제한 하에서 로스쿨 진학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어필하려는 마음에 나열식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자기소개서를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의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별 것 아닌 소재여도 어떻게 살을 붙이는지에 따라 교수님들의 호응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침삭 횡수는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침삭은 자기소개서의 핵심인 나다움을 희석시킵니다. 부끄러워서, 또는 시간에 쫓겨 침삭 횡수를 줄이는 것도 논증의 객관적 설득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침삭을 받다보면 특정 경험을 살린 서술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설득력이 있어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것만큼은 써야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다움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원서 접수와 자기소개서 제출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얼른 제출해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막바지 교정을 게을리 하기 쉽습니다. 학부 재학생이라면 마감 기한이 대개 중간고사 준비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수정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더욱 큼니다. 그래도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만큼은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며 오탈자 유무, 맞춤법, 자기소개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3. 면접 (2016. 10월 초 ~ 2016. 11월 중순)

자기소개서 작성 기간 동안 면접에 필요한 기본 배경지식과 법학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학년 재학 중이신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저도 자기소개서 기간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얼추 마무리되어 가던 10월 초부터 면접을 세 가지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LEET때부터 이어오던) 스터디를 통해 김종수 강사의 면접 교재에 수록된 수많은 주제들 중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들을 선별해 공부해 와서 토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카페 ‘서로연’을 통해서도 다른 학부 출신의 충남대 지원 예정자들을 모집해 충남대와 면접 경향이 유사한 학교들의 역대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풀었습니다. 총 5명이었기 때문에 10분 정도 각자 텍스트를 읽고 준비한 후 1명씩 돌아가며 발표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면접관이 되어 추가질문과 피드백을 해 주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균관대 로스쿨준비반 모의면접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양 수업 중 ‘스피치와토론’을 담당하시는 본교 교수님들께서 로스쿨 면접 예상문제를 만들어 오시면 지원자들이 이를 가지고 실전처럼 연습했습니다. 복장을 갖춰 입고 모의면접 전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녹화된 본인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비가 없습니다. 민망해서 보기 힘들지만, 영상을 확인하다 보면 본인이 당황하거나 긴장하

면 말이 빨라지는지, 표정이 굳는지, 시선이 분산되는지, 다리를 떠는지 등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듣고도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장된 상황에서 본인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 최소한 인식이라도 한 채로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준비나 확인 없이 들어가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실제로 면접 준비를 같이 했던 스터디 멤버들 중 작년에 면접 대비를 소홀히 해 고배를 마셨다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Ⅲ.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반영 요소별 구분

1. LEET

Ⅱ.1. 항목에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2. 학점

고학점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과의 경우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학점의 높고 낮은 기준을 수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문과에서 GPA 백분위 95%면 낮지 않은 학점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스쿨 입시에서 ‘결정적’인 변별력을 주는 요소로는 (대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만, 학점은 수험생의 성실성을 가장 간편하게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일찍부터 학점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학점이 나빠서 남은 기간 동안 학점에 투자해도 끌어올리기 어렵다 싶으시면 학점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를 고르시고 LEET나 공인영어성적 등 다른 요소들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 7학기 조기졸업을 위해 작년 1학기를 휴학했고 2학기에 복학해 14학점(2학기에 11학점, 계절학기로 3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했습니다. LEET 준비 기간 동안의 휴학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진술한 대로 LEET 성적이 투자한 시간과 직결되지 않고, 휴학해서 시간을 확보한다고 해서 LEET에 올인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멘탈 관리입니다. 적게나마 학교 수업을 듣는 경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형성되고 학교에 있는 것만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휴학을 한 채 학원 현장강의를 들으면 LEET에 집중할 환경이 조성되지만 학교 수업의 규칙적인 사이클과는 다르며 소속감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저도 휴학을 하고 좋았던 순간은 딱 3월 셋째 주까지였고, 그 후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학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 선배들로부터 동떨어져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휴학이 좋을지 모르나 개인 성향에 따라 이 선택이 멘탈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복수전공의 경우 4학년 내내 전공수업을 채워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까지의 학점이 높은 편이라면, 혹은 학점을 과감하게 포기했거나 듣는 수업이 적어서 시험 준비에 2,3주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할 약 2,3주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점을 올리는 어려우나 떨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학교 수업 수강과 LEET 공부, 시험기간에는 시험 준비로 이원화된 스케줄로 한 학기를 운영하는 것은 LEET에만 올인했을 때 나타나기 쉬운 지루함이나 슬럼프를 피하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3. 공인영어성적

가장 많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시험은 토익입니다. 이런 이유로 토익 성적은 고고익선이기도 하고 로스쿨 입시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점과 유사하게 워낙 토익 고득점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900 또는 950점 이상을 만점으로 간주하고 급간별로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텡스와 토플을 인정합니다(작년 기준). 서울대와 고려대에 지원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텡스 준비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텡스야말로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 점수를 올리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는 반면 실용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LEET 준비 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아 LEET 이외에 다른 요소에 투자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되실 경우 텡스를 준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5월부터는 LEET 문제풀이 연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공인영어시험 준비는 4월까지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제2외국어

저는 고등학교 때 중국어과였고, 한 때 중문과 진학을 희망했을 정도로 중국어가 재밌었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 후에도 중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교환학생 준비의 일환으로 新HSK 6급을 취득한 것을 로스쿨 입시에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입시 또는 법학 공부에 특별히 유리한 제2외국어는 없습니다. 다만 법학의 대부분 개념들이 한자어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어나 중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한자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자에 대한 경험치를 쌓기 위해 입시 기간 동안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준비되었음을 전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2외국어 시험점수가 아예 없다고 해서 로스쿨 입시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학토릿(학점, 토익, LEET)’이 아닌 이상 플러스 알파의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결과가 바뀌는 것이 로스쿨 입시이기 때문에, 확실한 제2외국어 실력은 분명한 강점이 됩니다.

5. 봉사활동

해외봉사 경험을 가진 수험생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봉사활동이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기회가 닿을 때마다 봉사활동을 했지만 (총 220시간), 한 곳에서 꾸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 3개월 간 사법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재판을 방청한 경험은 단기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장기적으로는 법조계의 일부에 대한 현장학습을 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6. 법학 과목 수강 이력

1. 항목에서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7. 기타 경력 - 법무부 국제법무과 인턴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기 때문에 별다른 경력을 쌓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연한 계기로 작년 상반기(3월 초 ~ 8월 말)에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외국어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 1회 근무했기 때문에 LEET 준비와 충분히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LEET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주 1회 과천에서 연수원 또는 로스쿨 출신 법무관, 검사, 사무관들을 만나 실제 법무부에서 하는 일을 인턴의 신분으로 접하는 것은 전술한 동부지법 모니터링보다 더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IV. 기타 사항 및 맺음말

1. 운동

1년의 입시 레이스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요소들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입시를 완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단 입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향후 로스쿨 재학 중에도, 사회에 진출해서도 체력은 필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 이후 약 2개월간의 PT를 거쳐 혼자 헬스장에 다니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로스쿨

에 진학해 보니, 운동을 하지 않았던 일부 동기들이 벌써부터 체력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습니다.

2. 소신과 ‘서로연’

로스쿨 입시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고, 작은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수험생들 사이에서 근거가 부족한 카더라 통신이 판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LEET 직전과 직후, 면접 직전과 직후에는 다음 카페 ‘서로연’에 글이 폭주합니다. 수험생인 이상 상황에 흔들리기 쉬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서로연’을 필요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서로연’은 (면접 준비를 위해 충남대 지원 예정자를 모집한 것처럼)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주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연’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다보면 스스로가 작게 느껴져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서로연’에 들락거릴 시간을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위한 시간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안 그래도 1년 동안 입시를 준비하면서 멘탈이 흔들릴 일이 많은데, ‘서로연’에 상주하면서 그 불안감을 증폭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3.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

최근 법조계 동향, 판결에 관한 기사, 법조인들의 칼럼 등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을 쉽고 빠르고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신문입니다. 저는 특히 면접 준비하던 시기에 법률신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률신문의 기사들을 통해 로스쿨 면접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에 대한 법조계 구성원들의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기사화된 판결들을 읽다 보면 LEET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리논증의 경우 법학 파트에서 이슈화된 판결들이 직접 출제되기도 하며, 판결을 둘러싼 학설 대립이 언어 이해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맺음말

“합격의 기쁨도 잠시, 앞으로의 3년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많은 합격수기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문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머리로만 이해했지만, 막상 대학원 생활을 시작해 보니 저절로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 로스쿨에 합격해서 이런 수기를 쓸 기회도, 좋은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울 기회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치르면서 제가 가장 고생했던 LEET가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독해력도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르기 어렵습니다. 로스쿨

입시에 반영되는 수많은 요소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여정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비단 로스쿨 입시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년간 가장 많이 되뇌었던 문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였습니다. 제 수험생활은 뜻대로 된 것보다 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들과 교수님, 가족의 격려 덕분에 입시 레이스를 완주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저라는 한 사람의 말만 맹신하지 마시고, 제 경험담을 각자의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취사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란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